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계속되는 방카슈어러 구조조정

- 벨기에계 방카슈어러인 KBC는 11월19일 유로공동체 산하 유로공정거래위원회와 구조조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1/5 이상의 자산을 매각하여 구제금융을 2013년까지 상환하기로 결정함.
 - KBC는 고수익을 창출하는 상업은행과 Private Banking을 포기하는 대신 은행과 보험 사업을 병행하는 기존의 방카슈어러 모델은 핵심 시장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
 - 구체적으로는 ① 위험자산의 25%를 상각처리하되 추가 자본확충은 하지 않으며, ② 상당기간 합병을 금하고, 2011년까지 배당을 연기함으로써 쌓여진 내부유보금을 벨기에·네덜란드 정부의 구제금융(70억유로)을 상환하는 데 사용하기로 결정함.
- 유로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의 25%만 최종 합의에 도달한 상황으로서 더 많은 금융기관이 구조조정될 것이라고 밝힘.
 - 유로공정거래위원회의 Neeli Koes 위원장은 현재까지 총 39개의 구조조정 대상 금융기관 중 25%인 9개 기관이 구조조정 합의에 도달했으며, 나머지 75%에 해당하는 28개 기관은 구조조정(안)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힘.
- 유로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주요 3개 금융기관 구조조정은 ‘구제금융으로 인한 불공정 비교우위를 상쇄시키되 금융기관의 생존력은 높인다’는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은 서로 다른 특색을 보일 수 있다고 주장.
 - 유로공정거래위원회는 ING의 핵심사업으로 평가된 은행(소매저축은행)부문을 유지하되 비핵심사업으로 평가된 보험부문은 정리하는 한편, 현재까지 규모가 가장 컸던 안정화 지원의 비교우위를 상쇄시키기 위해 고수익 창출 자산 운용사업과 Private Banking을 정리대상에 포함시킴.
 - Lloyds 역시 보험사업 등 비핵심사업을 정리하는 한편, 소매은행의 규모를 축소시켜 균형을 맞춘.
 - KBC는 기존 방카슈어러 모델을 유지하여 다른 금융기관 보다 정리대상 영역이 축소된 것처럼 보이나 고수익 창출 사업을 정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.

(Financial Times 11/19)